



특집

Feature articles | 하반기 닭고기 시장을 전망해본다

하반기 배합사료 수급동향 및 전망

1. 배합사료 생산동향 및 전망

2004년의 경우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과 아울러 미국의 광우병, 동남아 지역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소비자들의 축산물 소비욕구가 크게 감퇴되면서 전체 가축사육 규모 역시 동반 위축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여기에 사료산업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3/4분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국제선임(船賃)이 폭등하면서 배합사료의 경우 원재료비를 상승시켜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우려가 겹치면서 금년초 사료생산량은 감소세로 출발했다.

2004년도 전반적인 축산규모 위축의 영향으로 총 배합사료 생산량은 14,751천톤으로 2003년 대비 3.3% 감소했으며, 축종별로 보면 비육우사료(2003년 대비 5.4% 증가)를 제외하고는 양계용이 2.5%, 양돈용이 4.1%, 낙농용이 5.9% 기타용 사료가 19.2%씩 각각 감소했다.

이 같은 축종간의 생산량 편차의 원인은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수준을 유지해왔던 축산물가격이 2003년 이후 각종 질병발생과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해 하락세로 반전된 반면, 제반 여건상 수입쇠고기 및 기타육류의 대체육으로서 국산 쇠고기의 선호도가 급상승함에 따라 비육우용 사료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크게 우려했던 양계산물의 소비위축은 당초 우려와 달리 빠르게 회복되는데 힘입어 양계사료 생산량 역시 하반기 이후 크게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에 그쳤다.

한편 2005년의 경우 전 축종에 걸쳐 전례에 보기 드문 축산물가격의 호조에 편승해 상반기 중 배합사료 생산량은 7,401천톤이 생산되어 전년도 동기대비 1.7% 증가했으나, 이 같은 생산증가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침체 일로에 있는 국내 내수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반기중

축산물 가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돈폐사율 증가 등으로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여타 축종의 경우도 축산업 등록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체 축산업규모가 정체 내지는 감퇴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절적인 수요증가 시기 이후 8월 초순 현재 돼지고기 및 양계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생산증가가 원인이라기 보다는 수입량의 큰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다. 결국 하반기 이후 축산물 소비세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축산물 수요 증가분은 수입으로 대체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합사료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사료원료 시장 및 환율과 선임의 불안정 역시 사료가격 안정 및 생산량 증가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세계 사료곡물 수급 및 가격동향

2005. 7월 USDA(미국 농무성)가 발표한 곡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옥수수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생산량은 8.7% 감소한 반면 재고량은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미국 대두박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생산량은 0.1% 감소된 반면 재고량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전체적인 수급측면에서 볼 때 사료곡물 가격은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 주요 생산지역의 날씨 등 관련 뉴스를 보면 향후 그리 낙관만을 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주곡인 옥수수를 보면 미국 옥수수의 경우 중서부 옥수수 생산지역의 건조하고 뜨거운 폭염의 지속으로 인해 생육현황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수분기(Pollination Stage)의 열세요인으로 자리잡아

〈표 1〉 2005년 배합사료 생산동향

구분	2005. 1 ~ 6월 (A)	2004. 1 ~ 6월 (B)	누계대비 A/B(%)
양계	2,090,891 28.3	1,889,933 26.0	110.6
양돈	2,508,440 33.9	2,638,040 36.2	95.1
낙농	802,952 10.8	826,832 11.4	97.1
비육	1,597,014 21.6	1,500,715 20.6	106.4
기타	401,687 5.4	425,051 5.8	94.5
계	7,400,984 100.0	7,280,571 100.0	101.7

최근의 선물가격을 다시 강세기조로 전환시키고 있다. 대두박의 경우 역시 옥수수 시장과 마찬가지로 Midwest지역의 지속적인 가뭄현상과 허리캐인으로 인한 질병(대두녹병, Asian Rust)의 확산 우려와 생육현황의 열세 요인 등이 대두박 선물가격의 강세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사료원료 수입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상운임의 경우 지난해 갑작스런 이상폭등으로 인해 사료 및 축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금년 2/4분기 접어

들면서 상당부분 안정세로 돌아서 최근에는 지난해 3월 대비 Gulf 기준으로 50.0% 정도 안정되어 앞서와 같은 옥수수 및 대두박의 가격상승을 상쇄시키고 있다<그림 1>.

그러나 선임은 과거에도 경험한 바와 같이 현재의 중국경기 성장속도와 그 폭에 따라 등락이 좌지우지되는 불투명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 볼 때 사료곡물 수입가격 안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표 2> 미국의 옥수수 및 대두 생육현황(2005. 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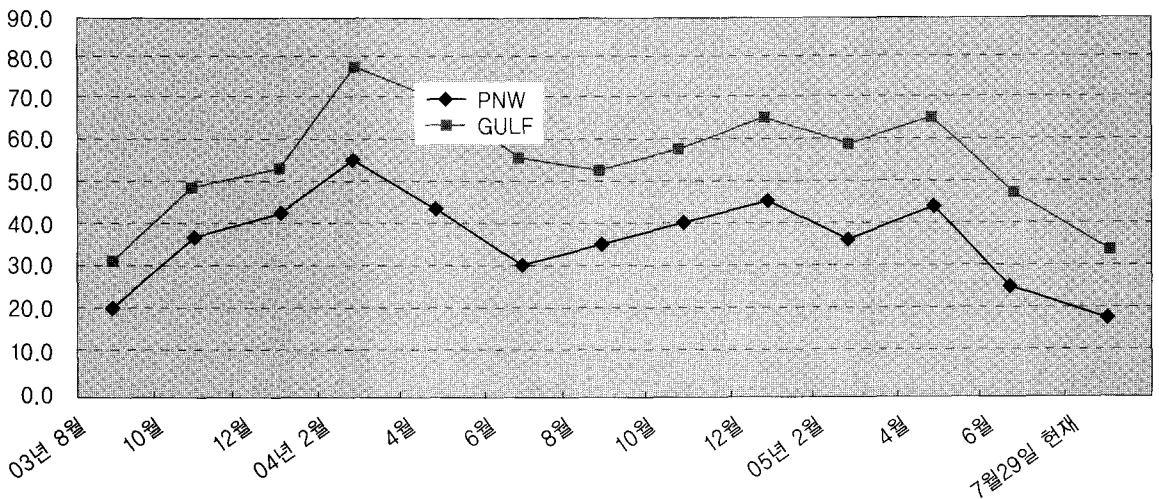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옥수수					대두				
	VP	P	F	G	EX	VP	P	F	G	EX
18개주평균	7	14	26	39	14	4	12	30	43	11
작년	1	15	17	52	25	2	6	23	51	18

※VP-Very Poor, P-Poor, F-Fair, G-Good, EX-Excellent

<그림 1> 해상운임 동향

(단위 : US\$/톤)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사료원료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세계 사료원료의 수급상황, 해상운임, 환율이 있는데 그 중 환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사료가격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은 연초부터 미국의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지속으로 미 달러화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금년 3월에는 1불당 1,007원까지 급락했으나, 최근에는 달러 가치가 점차 안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1,020원대까지 반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현 수준에서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산업에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환율방어에 나설 경우 오히려 환율상승으로 반전되어 배합사료 가격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3. 배합사료 가격전망

2004년도 2/4분기 이후 국제 사료원료가격

및 해상운임의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유지해오던 국내 배합사료가격은 지난해 10월 이후 제반 여건의 호전으로 점차 안정을 되찾아 오고 있다.

국내 유통사료 가격은 지난해 12월과 금년 초에 걸쳐 업계 평균 3.5%의 가격을 인하했고, 이후에도 일부 할인 판매가 성행하는 가운데 농협이 전체 농협사료 가운데 58.1%를 차지하는 낙농·비육우 사료에 대해 4~5월 한시적으로 2.0%를 할인판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배합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때 하반기 이후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더 이상의 추가인하는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사료업계의 일각에서는 2005년 하반기 이후의 환율상승에 대비하여 서둘러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료가격 및 환율의 안정 등 사료산업의 경영환경이 다소 호전되면서 몇 차례 배합사료 가격을 인하했고, 금년

〈표 3〉 주요원료 수입가격 동향

(단위 : US\$/톤)

구 분	2005. 1(A)	2005. 5	2005. 6(B)	변동률(% , B/A)
옥수수	143.9	135.7	137.2	Δ4.7
소 맥	142.9	154.9	155.0	8.5
루핀시드	167.8	188.2	199.7	19.0
대두박	241.3	246.2	237.0	Δ1.8
소맥피	124.0	124.6	126.6	2.1
채종박	153.9	145.6	144.4	Δ6.2
면실박	148.9	164.8	169.4	13.8

※ 주 : 통관가격기준임.



국내 배합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때 하반기 이후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더 이상의 추가인하는 어려울 전망이며, 오히려 사료업계의 일각에서는 2005년 하반기 이후의 환율상승에 대비하여 서둘러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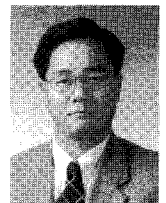
들어셔도 추가적인 가격인하와 할인판매를 행함으로써 배합사료 가격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의 재 상승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특히, 상당기간 안정세를 보여오던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 즉 시중금리의 인상이 예견됨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이 예견되고 있어 배합사료 가격 인상요인 발생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2004년 상반기 이후 급등한 원료가격과 선임시세의 폭등으로 지난해 두 차례나 배합사료 가격을 인상한 경험이 있듯이 금년 들어 지금까지는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도 불안요인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같은 공급 불안정 추세가 지속되어지리라 보여진다.

따라서 아직은 사료업계에서도 금년 하반기 이후에도 축산 및 사료업계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리라 낙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C



홍순찬 팀장
(사)한국사료협회